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형제가 된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소원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10:1-2)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과 중에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을 자기들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며칠 전에 때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시 전체가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은 열심파들이 사는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였으나, 다른 구역은 차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10:3-4)

바울이 그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 아직도 진실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고, 조그마한 상자를 앞마에 달고, 줄을 머리에 메고 기도할 때 쓰는 술을 목에 두르고, 몸을 앞뒤로 계속해서 흔들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대인 친구와 어느날 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이, ‘척 목사님, 나의 부친은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부친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이 예수를 메시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나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부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설립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가져 와서, 그들 대신에 죽여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뜻을 가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친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의를 일부러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길을 실제로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수궁하기가 나에게서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워 보려고 하였으나, 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이를 수도 없었다”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일 사람이 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하나님과 한 대속자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척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으니 어찌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넓히고 있으니, 그런 자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이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다도, 모하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문을 넓게 열기 때문에, 당신이 적당히 세상과 짝하는 생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꺼리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10:5-8)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10:8-9)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보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하루종일 돌아 다니면서 잡지를 나눠 주며, 영적 잠에서 깨워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행성사를 하기 위해서 몇 일간 이 십리나 되는 길을 무릎으로 기어가서, 조각한 어떤 상에 입을 맞추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내어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나의 행위가 가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히 행한 일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일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둡고 냄새가 나는 위험한 늪지대를 통과한 나의 헌신을 거기에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이나, 혹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도 자랑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입술은 주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피와 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되었다는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구원은 당신들 모두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당신들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 당신들의 입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이 저 멀리 있어서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 줄을 타고 천국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모셔 오자’ 라던가, 혹은 ‘아스베스토스 옷을 입고, 지옥에 내려가서 무덤에서 메시아를 모시고 올라오자’ 라는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당신의 입만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10:11-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는 말씀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바울에게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주 동등하다는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0:12-13)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박케 할 자를 강박케 하신다는 말씀을 바울이 선언한 다음, 이 말씀이 곧 이어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자 명단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선택한 사람 중에 속하는가? 어디 보자. 너의 이름이 택한 자의 명부에 없으니, 미안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정되었던지, 아니 되었던지, 혹은 택함을 받았던지, 아니 받았던지, 선택을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당신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나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의지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에게 믿으라고 하셨지, 그것을 화합하여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화합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오랫동안 마음에 숙고해 보았는데, 도저히 화합이 되지 않아 지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서재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성경을 책상 위에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도저히 화합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서재를 나와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어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믿으라고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나는 믿었습니다. 당신이 예정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선택을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만일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다는 사실과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나머지, 교회 앞에 성경구절도 붙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받지 못한 자가 와서 그 구절을 읽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봐?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위치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위치인 예정론과 선택론을 고수한다면, 당신은 진리의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극단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두 진술은 모두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화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의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흥미가 있는 사실은 어떻게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0:14-15)

여기 구절에, 교회가 선교활동을 해야 하는 기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받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키스 에릭슨이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주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드리안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나는 산타 모니카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키스라는 친구가 언젠가 한 날 여기도 왔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그의 간증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남가주에 살면서, UCLA에서 공부를 했는데, 24세 때까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장소에서는 아주 크게 실패를 하고 있음을 깨달게 됩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어찌 들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고서 어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초적인 것은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제시한 의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10:15)

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로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은 텔레비전이나 석간 신문이나 뉴스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강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써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10:16-17).

사람이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며,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내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믿도록 도와 주십시오. 믿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만일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나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과 함께 식당에 갈비를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나의 아내가 말하기를, '오 여보, 그 말을 믿게 도와주시오,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말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할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복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계속 머물게 하는 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자신을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기란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더 큰 믿음을 원합니까?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은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10:18)

예,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10:19)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방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은혜와 언약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복인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서를 연구 할 때에, 나의 손자들을 놓고 말씀을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손자들을 사랑하는 중에 내가 특히 사랑하는 예쁘고 깜찍하고 영리한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손녀는 특히 나에게서는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손녀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를 고사리 같은 자기 손으로 완전히 껴안고 놓지를 않아, 내가 곤혹을 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손녀는 할아버지한테만 오면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손녀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손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알아 줄 때에, 이 손녀는 와서 팔꿈치로 다른 손자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할아버지곁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손자들이 올 때에, 나는 일부러 그 손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오, 이리로 오라. 와서 내 무릎에 앉으렴! 오늘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라고 말하면, 내가 좋아하지만,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 손녀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내게 달려와서, 그 손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인형과 같은 이 손녀에게 완전히 반해서, 내가 이 손녀를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질투를 일으킬 연극을 조금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의의 길을 떠나 독립적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복 주시면서 말씀

하시기를, “오 나에게 오라. 와서 왕국을 받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모든 축복을 누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유대인들이 팔꿈치를 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백성 아닌 자들로 너를 질투가 나게 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나라로 너에게 노하라” 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10:20-21)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주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루종일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포기하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당신들의 생활에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실 때에, 그의 능력의 기쁨과 그의 임재를 체험하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빔어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 생활에서 큰 승리를 체험하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이 주간에 당신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당신의 믿음이 더욱 증가하기를 바랍니다.